


경제관계장관회의 겸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
25-12-2
(공개)

 역동경제로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조선 RG 공급 확대방안

2025. 4. 9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 . 추진배경	1
[참고 1] RG의 정의 및 발급 구조	2
[참고 2] 그간의 RG 공급 확대방안	2
II . 조선 RG 확대 추진방향	3
1. '25년 중형조선사 RG 발급기관 및 규모 확대	3
2. 미래가치 기반 RG 발급	3
III . 향후계획	4

I. 추진배경

- **(조선업 동향)** '16년 수주절벽 등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 회복과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최근 수주실적이 큰 폭 증가

- 글로벌 호황*, 친환경·고부가 선박 경쟁력, 미국의 對中 규제**, 한-미 조선협력 활성화 가능성으로 상당기간 조선업 호조 전망

* 글로벌 발주량은 '34년까지 연간 4천만CGT 이상 유지 전망(클락슨리서치, '24.9월)

** 중국산 선박이 미국 입항시 적당 100~150만불의 수수료 부과방안 논의 중

글로벌 발주량 및 국내 수주잔량 추이(단위 : 백만CGT)

	'16년	'18년	'20년	'22년	'23년	'24년
글로벌 발주량	14.4	36.1	27.7	52.7	49.4	69.7
국내 수주잔량*	20.8	23.1	23.0	37.4	40.0	37.0

* 상위 9개 조선사 기준 / 클락슨리서치('25.2월)

- **(RG 현황)** 예전보다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보증(RG) 발급이 증가했으나, 조선업 호조로 급증한 업계의 RG 수요 대비 여전히 부족

- **RG(Refund Guarantee)** : 선박 적기 인도 실패에 대비하여 발주처(선주)가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,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조선업 수주에 필수적

- 대형사는 양호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발행중이며, 금융기관 추가발급 여력도 96.7억불 이상으로 충분한 상황

- 다만, 중형사*는 최근 선박발주 호조가 기회요인이 되고 있으나, 과거 재무실적**에 기반한 심사구조로 빠른 RG 발급 확대에 애로

* 중형조선사 3社 : 대한조선, 케이조선, HJ중공업

** 금융기관은 과거 대규모 손실 사례 이후 재무실적 심사를 강화

연도별 RG 발급(단위 : 억불)

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조선사 전체	68	166	176	117	154
중형조선사*	2.4	7.8	8.8	4.7	7.9

* 산업은행 발급분 + 시중은행 발급분('24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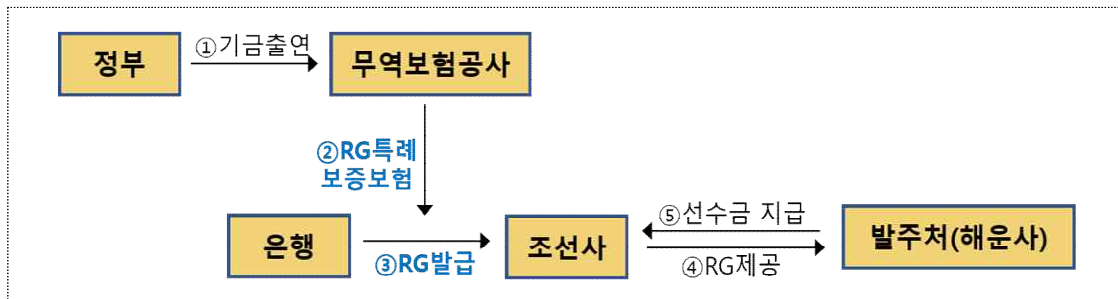
⇒ 선박발주 호조로 중형사 재무구조가 개선된 상황에서 RG 발급속도 지연으로 수주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

[참고 1] RG의 정의 및 발급 구조

- (정의) 조선사가 기한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,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선수금*을 대납하는 지급보증

* 통상 선박대금의 40%를 선수금으로 지급, 원자재 구매 등 제작자금으로 활용

- (발급구조) 정책금융기관(산은·수은 등) 및 시중은행이 발급
 - 민간은행이 중소형 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서는 필요시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(복보증) 지원



[참고 2] 그간의 RG 공급 확대방안

- (특례보증 도입, '19년) 금융기관의 중소조선사 RG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(복보증) 도입

- (RG활성화 대책, '23.5월) 무보 특례보증 보증비율(70→85%) 및 지원규모(1,200억→2,000억원) 확대, 여신한도 초과 발급시 면책 지원*

*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감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면책

- (중형사 RG 지원, '24.6월) 시중은행도 RG 발급 참여, 무보 특례보증 보증비율(85→95%) 및 지원규모(2,000억→4,000억원) 추가 확대

- (소형사 RG 지원, '24.12월) 외부기관(회계법인, 한국선급)의 사업성 검증을 전제로 무보·신보 특례보증*을 활용해 수출용 RG 발급

* (무보) '25년 특례보증 지원규모 추가 확대(4,000억→6,000억원)

(신보) 기존에는 내수용 RG만 발급했으나, 운용배수(3배→5배) 및 지원한도(750억→1,250억원) 확대로 수출용 RG도 신규 발급

Ⅱ. 조선 RG 확대 추진방향

◇ 재무구조 개선과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중소형 조선사 RG 발급을 적극 확대하되, 조선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기반도 함께 강화

1 '25년 중형조선사 RG 발급기관 및 규모 확대

□ ①특례보증 확대, ②RG 발급기관 다변화, ③개선된 재무여건* 신속 반영 등을 통해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 적기에 RG 공급 확대

* 중형 3社 영업이익(합산, 억원) : ('22) 329 ('23) △1,318 ('24) 1,769

① (특례보증) 시중은행 단독 RG 발급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에 무보 특례보증 잔여한도* 내에서 상반기 중 RG 발급 신속 지원

* '25.3월 기준 6천억원 한도 중 4,245억원 既발급, 1,755억원 추가발급 가능

- 최근 선박 발주 수요를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(현 1,200억원)을 대폭 확대

② (기관확대) 현재 중형조선사에 RG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기관(수출입은행, 시중은행 등)도 신규 발급을 적극 추진

* 중형사는 산은만 RG를 발급하고 있으나, RG 수요가 급증한 '24년의 경우 산은 RG 한도 13.7억불 한도가 소진되어 기은 및 8개 시중은행이 1척씩 추가 발급(2.6억불)

③ (규모확대) RG를 既발급중인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도 최근 재무상황 개선을 바탕으로 발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

* '24년 결산결과 기반 신용평가(4월) → 발급계획 수립(5월)

2 미래가치 기반 RG 발급

① (심사기준 마련) 유망 프로젝트 수주로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한 RG 발급 지원

○ 프로젝트의 사업성, 유동성 확보계획 및 선수금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'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' 마련

* 조선업 리스크 및 중형사 경영환경을 감안해 수익성, 유동성 기준 및 선수금 관리 등에 대해 규정 → 조선업황 변동 등 위기발생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

현장의 목소리

- 조선사 : 미래가치가 높은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도 현재 재무제표에 기반한 기업 신용도 위주의 RG 심사 기준으로 인해 RG 발급이 제한
- A은행 : 조선사의 기술력,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수주계획만 보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에 RG를 발급하는 것은 큰 부담

② (기관면책) 고의·중과실이 없고, '수주 가이드라인'을 준수한 경우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감원 검사 및 부처별 감사 시 면책을 지원

- (금감원 검사) '수주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받은 RG발급' 업무를 면책특례 대상으로 사전 지정(~'25.上)

*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(금융위)」 : 금융·산업정책 방향, 업무의 혁신성, 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특례 대상으로 지정시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면책 가능

- (부처별 감사)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별 감사규정* 내 '사전컨설팅' 및 '적극행정 면책**' 제도를 활용해 면책 지원

* (수은) 기획재정부 감사업무 처리규정, (무보)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

** 적극행정 면책 요건 : ①공익을 위한 업무처리 결과일 것, ②적극적 업무처리 결과일 것, ③고의·중과실이 없을 것

③ (조선사 책임 강화) 조선사의 무리한 수주, 방만한 자금운영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

- (수익성 기준) 수주 가이드라인에 조선업 업황 변동성, 중형사 경영환경 등을 감안한 수익성 기준 규정

* 예 : 일정수준 이상의 영업이익률 확보 및 외부 전문기관 검토

- (자금관리 강화) 선수금 전액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프로젝트 자금 확보

- (보증보험료) 재무여건상 RG 발급이 곤란한 기업이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발급 시 신용여건을 고려해 적정 수준 보험료 산정

Ⅲ. 향후계획

- ☐ ('25.5월) '24년 결산 결과를 감안하여,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에 구체적 RG 지원계획 마련

- ☐ ('25.상반기)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 마련